

의료기관			번호: IV - A -2					
제 목	국문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병원의 시술량이 장기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영문	Hospital Volume Differences and Four-Year Survival from Breast Cancer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형근 ¹⁾ , 이희영 ²⁾ , 윤석준 ²⁾ , 안형식 ²⁾ , 염용태 ²⁾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Hyeung-Keun Park ¹⁾ , Heeyoung Lee ²⁾ , Seok Jun Yoon, Hyeng-Sik Ahn, Yong-Tae Yum 1) Technical Support Center for Rural Health Service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자원-의료기 관	발표자	박형근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의 유방암 환자 수술건수와 유방암 환자의 장기 생존률(4년 생존률)과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병원의 시술량은 1994-1996년도 암등록사업에 유방암으로 등록된 환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1군: 10건 이하, 2군: 11-50 건, 3군: 51-149 건, 4군 150 건 이상). 각 군별로 조사대상병원을 표본 추출하였고 1군-3군의 경우 전수조사를, 4군의 경우 표본추출한 대상에 대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시행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모든 사망을 사망으로 정의하였고, 사망원인신고자료와 의무기록자료를 결합하여 생존여부를 평가하고 생존기간을 산출하였다. 시술량 이외에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령, 병기, 분화도, 합병질환, 항암치료, 홀몬치료, 방사선 치료 등 치료방법, 수술 방식의 차이에 관한 변수를 수집하였고, Cox proportional hazard 모형을 구축하여, 유방암 환자의 4년 생존률에 대하여 병원의 시술량이 유의한 변수인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군의 경우 7개 병원 88명, 2군은 9개 병원 390명, 3군은 5개 병원 442명, 4군은 3개 병원 447명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시술량 군별 사망자 수에 대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술량 군별 병기의 분포에 관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존률에 대한 단순 생존곡선 비교에서 시술량 군별로 4년 생존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